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 서품식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이 10일 오후 광주 서구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광주교구장인 김희중(히지노 대주교 집전으로 거행된 이번 서품식에서는 신도 등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제 5명이 사제품을, 신학생 8명이 부제품을 받았다.

‘돈봉투 쓰나미’ 정치권 휘청

수사 확대 일파만파...총선 앞두고 초비상 與 전방위 수사 촉구, 野 당자체 진상조사

‘4·11 총선’을 3개월 앞둔 정치권이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고승덕 발(發) 폭로로 시작된 돈봉투 파문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비례대표 인선, 2010년 전당대회와 구당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여당은 선거운동을 포기할 정도의 상황에 처했다. 야당에도 파장이 확산하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쓰나미’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여야는 서둘러 고강도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당대회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때 감추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해 왔다”면서 “이번 일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드러내 근원적 처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

이에 따라 여야 간에 분명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를 앞두고 여야 모두 급품선거라는 구태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여당은 선거운동을 포기할 정도의 상황에 처했다. 야당에도 파장이 확산하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쓰나미’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여야는 서둘러 고강도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당대회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때 감추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해 왔다”면서 “이번 일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드러내 근원적 처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

다. 핵심 당직자는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2008년 전대뿐 아니라 2010년, 2011년 전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히 수사에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돈 전달 의혹의 당사자인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장직 사퇴도 거듭 압박했다. 정면 돌파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가장 빠른 수습책으로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합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15 전당대회’ 당권주자의 돈봉투 제공 의혹에 대한 당 진상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뚜렷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선부르게 대응을 하고 나서면서 화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과소비·대부업체 늪에 빠진 2030

명품 욕망에 빚쟁이로...광주 개인회생 신청 급증

지난해 개인 회생절차 신청이 급증하는 등 서민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난과 고공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20~30대들이 금리가 최고 39%에 이르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이렇다할 변제 노력도 없이 개인채무회생을 신청해 법원에는 대부업체들의 이의 제기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젊은층의 과소비 문화가 한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4분기까지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건수는 319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792건보다 14.5%가 늘어났다. 이 중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은 2911건으로 전체의 91.05%를 차지했다.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접수된 개인채무자 회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까지는 40대 이상과 대졸일이 5년 이상 지난 채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이와 달리 26~31세 젊은층의 1년 이내 채무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젊은층의 개인채무자 회생 신청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과소비 문화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부업체 증가 등이 꼽힌다. 이들은 최근 1년 사이 돈을 빌린 뒤 변제 노력 없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젊은층들은 대부분 미취업 상태거나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고용돼 신용도가 낮은 탓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쓰고 있으며, 이들의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대부업체가 법원에 이의나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매달 수입이 120만원에 불과한 김모(여·25)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지난 2010년 2000만원을 빌려 명품 가방

및 차를 구입했다가 1년 동안 대출금 이자에 부담을 느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인 정모(22)씨도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빌렸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젊은층의 ‘빚’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도 지난해 개인회생절차와 관련 2206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체 민원건수 3만 5778건의 16.2%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젊은층의 개인회생절차 신

청이 급증하면서 부모의 경제활동에 까지 피해를 입혀 가정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43단독 나경 판사는 “가족 병력 또는 자녀 장애, 배우자 사업 실패 후 연대보증채무 부담 등 사정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하지만 지난해에는 유독 젊은층들의 신청이 늘었으며, 이는 제2, 제3의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청렴도 꼴찌 전남도 부패방지 노력도 미흡

권익위 2011년 시책평가...광주 시도 하위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꼴찌에 머문 전남도가 부패방지 노력에서도 가장 미흡한 기관으로 꼴찌했다. 광주시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남대병원의 부패방지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내놓은 ‘201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패방지 노력에 가장 미흡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08곳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활동과 성과를 기관유형별로 나눠 최종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전남도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기관장 노력도 ▲제도 개선 종합대책 ▲부패영향평가 운영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기관별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실적 ▲반부패 수범사례 ▲부패방지 성과 등을 종합해 이뤄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매우 미흡(5등급)’으로 조사돼 총복과 함께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 가장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1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16개 시도 중 15위를 차지한 데 이어 부패 방지를 위한 의지와 노력도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불명예’를 안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도 ‘미흡(4등급)’을 받아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전남대병원도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미흡(5등급)’을 받았고 광주·전남 교육청은 ‘보통’ 판정을 받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개편해 성과와 수범사례까지 종합 평가할 방침이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2년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2.01.13(금)까지
www.kwangshin.co.kr
입학문의 (062) 605-1112 (062) 605-1023

자유투어 www.jaUtour.com 062) 371-3757
럭셔리 상품 [에코백,슬리퍼,고급짐백 제공]
하와이/미서부 11일 1,790,000원
시드니.울릉공 저비스베이 6일 1,790,000원
서유럽 6국 12일 3,090,000원
동남아 599,000원
중국 199,000원
유럽 1,790,000원
미주,남태평양 799,000원

예/약/상/담 북구점 350-6226 상무점 652-2974 동구점 227-8255 남구점 382-5353 하남점 954-9700 수완점 574-1300 첨단점 233-2627 광천점 267-8587 충장점 222-9796